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1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전월대비 0.6% 감소)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어 0.6%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의복 및 모피,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함(전월대비 -1.7%).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 보험, 전문 · 과학 · 기술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숙박 · 음식점, 운수 · 창고 등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함(전월대비 -0.2%).

◈ 2021년 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보합, 설비투자는 19.4%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6.7%), 의복 등 준내구재(-12.1%)는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26.4%)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보합(전월대비 +1.6%).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12.6%)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2.9%)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9.4% 증가함(전월대비 +6.2%).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6.4%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p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p	1월	12월p	1월p
생산	전산업	1.5	1.0	-1.2	-0.5	0.8	1.1	2.3	1.4	-3.7	-0.9	-1.5	-0.8	-0.7(0.4)	1.4(-0.6)
	광공업	1.4	0.4	-0.4	-2.0	0.0	0.8	2.5	4.6	-5.9	0.2	-0.1	-3.3	2.5(2.7)	7.5(-1.6)
	제조업	1.3	0.5	-0.3	-1.8	-0.3	0.9	2.7	5.0	-6.0	0.4	-0.1	-3.2	2.4(2.7)	7.4(-1.7)
	건설업	-4.2	-2.3	-4.1	-5.9	-2.4	-3.4	2.1	-0.8	-5.5	-4.2	-5.3	-7.6	-4.8(-2.4)	-6.4(-6.0)
	서비스업	2.3	1.4	-2.0	0.9	1.3	1.5	1.9	-1.0	-3.4	-1.7	-2.0	0.9	-2.2(-1.1)	-2.0(-0.2)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6	2.0	2.3	3.3	-2.9	2.0	1.6	-1.2	1.6	-2.1(0.1)	0.0(1.6)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18.2	-6.3	-1.3	4.5	8.1	5.8	7.7	2.9	-2.2	5.2(1.9)	19.4(6.2)
물가		1.5	0.4	0.5	0.5	0.7	0.0	0.3	1.2	-0.1	0.6	0.4	1.1	0.6(0.8)	1.1(0.5)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3) 2019년 이후 전산업 연간 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2월, 2021년 1월, 2021년 2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202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전월대비 0.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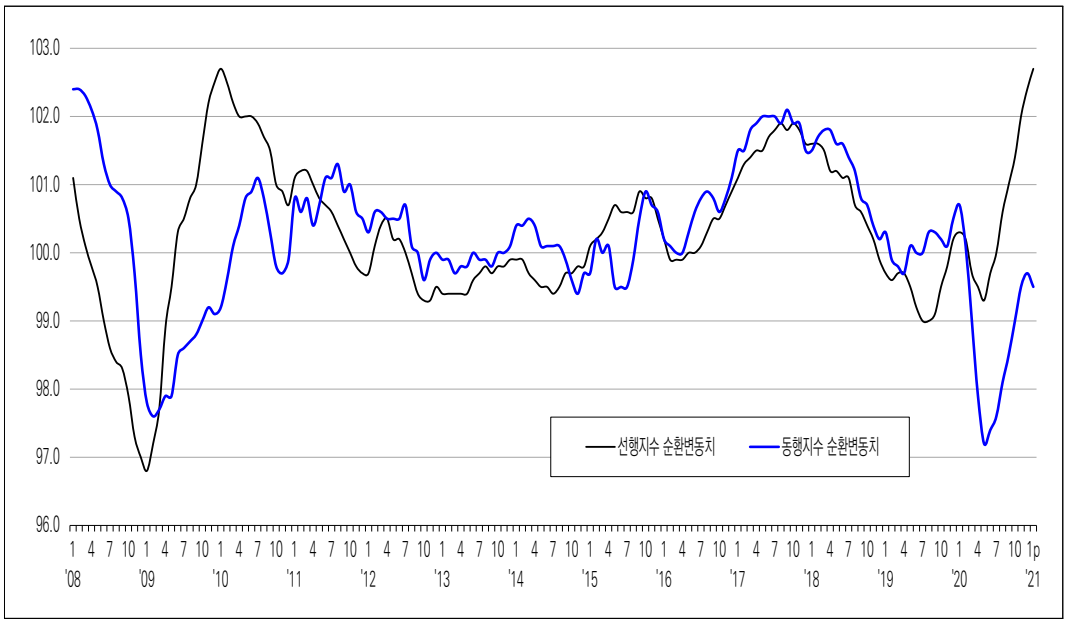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 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 · 비주류음료(9.7%), 음식 · 숙박(1.2%), 기타 상품 · 서비스(1.5%), 보건(1.1%), 의류 · 신발(0.5%), 주택 · 수도 · 전기 · 연료(0.1%),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0.1%)는 상승했고, 주류 · 담배는 변동 없으며, 오락 · 문화(-0.7%), 통신(-1.2%), 교통(-2.0%), 교육(-2.9%)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하고, 식품 이외는 1.4% 하락하여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함.

◈ 2021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6% 증가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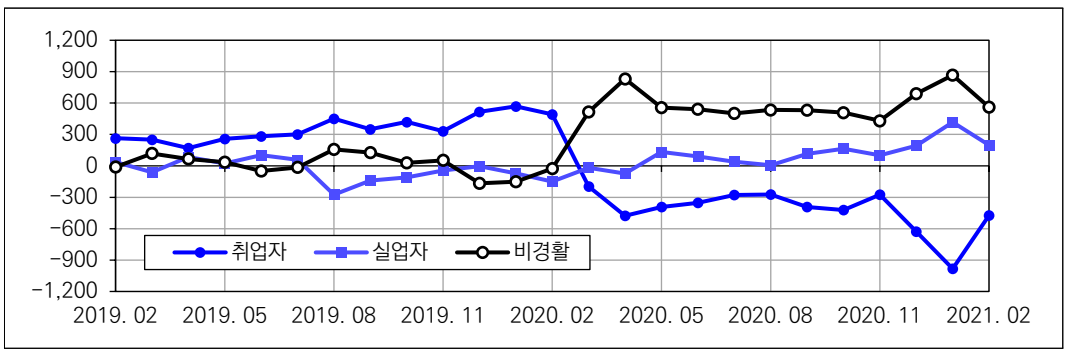
◈ 취업자 감소폭 및 실업자 증가폭 크게 축소

○ 2021년 2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47만 3천 명 감소, 전월대비[1] 53만 2천 명 증가함.

- 전월대비 일자리 증감폭(취업자 증감과 일시휴직자 증감의 합)은 2020년 9월 -59만, 10월 +35만, 11월 +17만, 12월 -50만, 2021년 1월 -14만, 2월 +68만으로 취업자 증가와 일시휴직자의 감소에서 기인함.
- (산업별) 제조업은 추세보다 취업자가 증가함. 피보험자도 증가 추세를 이어 감. 음식·숙박과 보건복지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함. 음식·숙박은 모든 연령,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증가함. 보건복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개로 70세 이상에서 증가함.
- (연령별)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는 증가, 실업자는 감소함. 20대와 60세 이상은 비경활도 감소함.
- (종사상 지위별) 임시직과 일용직이 증가함. 임시직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에서 증가함.
- (일시휴직자) 일시휴직자는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감소함. 업종별로는 음식·숙박과 예술스포츠에서 감소함.
- (실업자) 실업자는 크게 감소함. 주로 70세 이상 전직 공공행정 및 보건복지에서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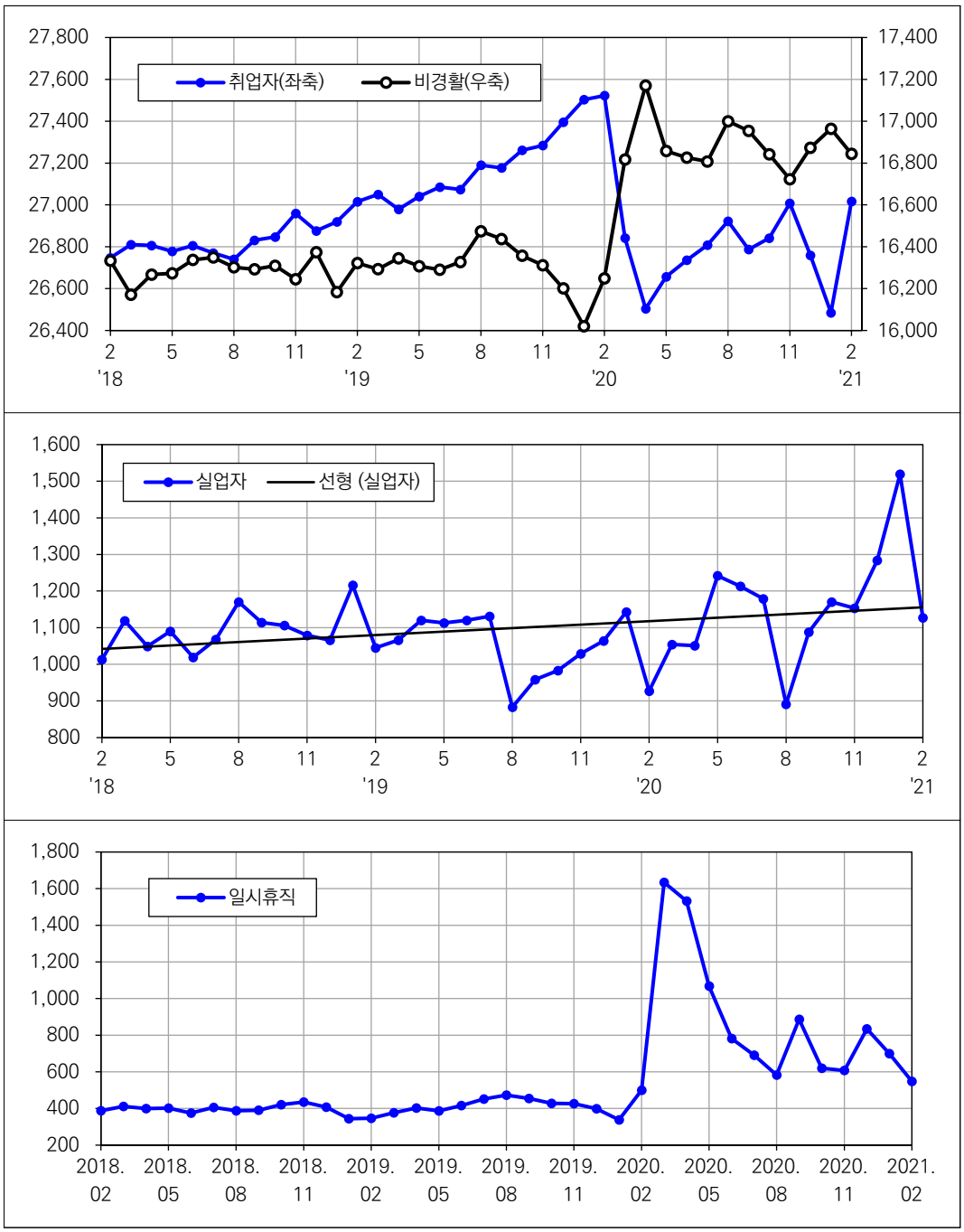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계절조정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함. 통계청 계절조정계열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전월대비 통계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의 전월대비 차이로 계산함. 예를 들어 9월 제조업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9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에 8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을 뺀 값을 의미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2021년 2월은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함.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의 증가폭이 큼.

- 30대 미만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실업 및 비경활은 감소함.
- 60세 이상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 및 비경활은 크게 감소함. 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인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와 관련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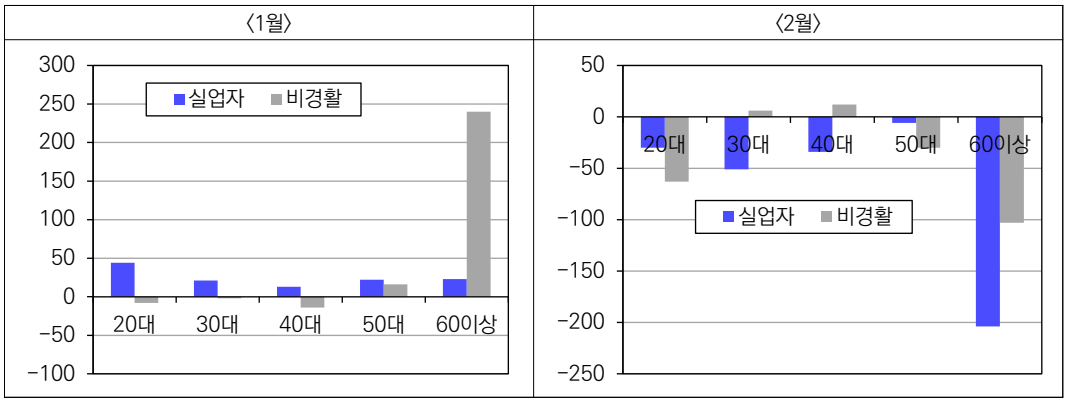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2월	1월	2월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취업자	-7	-11	6	-12	-53	-14	90	24	-37	-29	32	-34
실업자	-5	6	-2	-1	-15	44	-30	0	12	21	-51	-18
비경제활동인구	-1	-5	-18	-24	75	-8	-63	4	13	-2	6	17
실업률	-2.2	4.0	-1.3	0.5	-0.2	1.1	-0.9	0.0	0.3	0.4	-1.0	-0.3
고용률	-0.3	-0.4	0.3	-0.4	-0.9	-0.4	1.4	0.1	-0.4	-0.3	0.6	-0.1
	40대				50대				60세 이상			
	12월	1월	2월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12월	1월	2월	3개월
취업자	-17	-5	15	-6	-25	-39	35	-29	41	-208	363	196
실업자	1	13	-34	-19	15	22	-6	31	129	23	-204	-51
비경제활동인구	10	-14	12	8	9	16	-30	-5	-114	240	-103	23
실업률	0.0	0.2	-0.5	-0.3	0.2	0.4	-0.1	0.5	2.2	0.6	-3.8	-1.0
고용률	-0.1	0.0	0.2	0.1	-0.3	-0.5	0.5	-0.3	0.1	-1.9	2.8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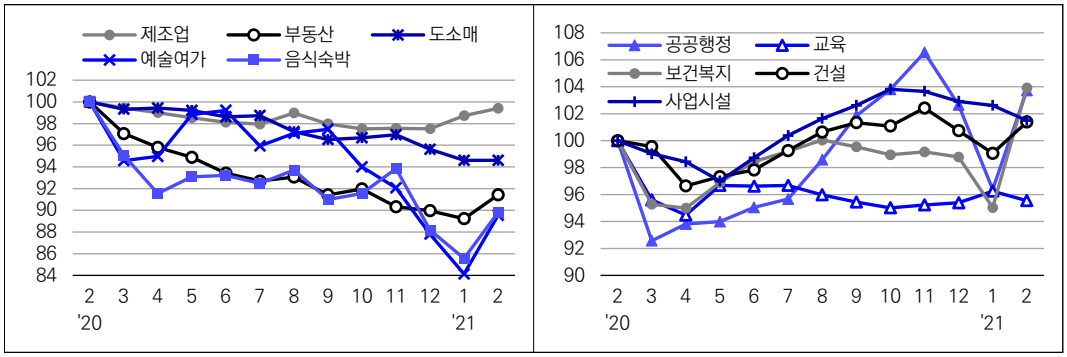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보건 · 복지, 예술 · 여가, 음식 · 숙박, 부동산, 건설업, 제조업이 회복세인 반면, 도 · 소매는 정체 상태임. 사업시설 및 교육서비스는 감소세임.

– 공공행정, 보건 · 복지, 예술 · 여가, 음식 · 숙박은 감소 추세에서 반등함.

[그림 4] 산업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59	-14	33	96	-5	20	111	7.7
광업	-1	-1	-1	0	0	0	0	0.0
제조업	-110	-46	-27	-2	54	30	82	1.9
전기 · 가스 · 증기	5	-3	-5	-3	-2	0	-5	-6.5
수도 · 원료재생	18	16	14	1	-5	-1	-5	-3.1
건설업	23	-20	28	-34	-34	47	-21	-1.0
도매 및 소매업	-197	-218	-194	-48	-36	0	-84	-2.4
운수 및 창고업	29	30	25	14	14	7	35	2.3
숙박 및 음식점업	-313	-367	-232	-129	-60	97	-92	-4.3
정보통신업	-2	-14	-5	14	-16	9	7	0.8
금융 및 보험업	-21	16	5	5	27	-3	29	3.8
부동산업	-66	-63	-47	-2	-4	12	6	1.2
전문 · 과학 · 기술	12	-15	-8	11	-17	6	0	0.0
사업시설관리지원	38	27	20	-10	-4	-15	-29	-2.1
공공행정 · 사회보장	91	20	38	-44	-71	83	-32	-2.7
교육서비스업	-99	-75	-82	3	16	-13	6	0.3
보건 및 사회복지	44	-74	91	-9	-89	211	113	4.8
예술 · 스포츠 · 여가	-77	-81	-52	-22	-19	28	-13	-2.7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	-69	-103	-84	-42	-28	28	-42	-3.6
가구 내 고용 · 자가소비	6	2	7	4	-7	1	-2	-2.0
국제 및 외국기관	3	1	2	1	-2	1	0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2월은 임시·일용직이 증가함.

- 임시직은 공공행정, 보건복지에서 증가함.
- 일용직은 음식·숙박, 건설업에서 증가함.
- 상용직은 도소매, 사업관리에서 감소하고 음식·숙박, 보건복지에서 증가함.
- 음식·숙박은 전월대비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증가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5	36	82	42	112	34	187	1.3
임시직	-351	-563	-317	-193	-304	315	-183	-4.0
일용직	-170	-232	-80	-136	-40	111	-66	-4.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8	-158	-156	-29	-13	9	-33	-2.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75	32	45	51	-32	18	37	0.9
무급가족종사자	-50	-96	-47	9	-29	43	23	2.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전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농림어업	0	-11	0	-3	-3	-2	1	14	-1	-2	3	-4	46	-15	37
제조업	13	65	-1	2	5	1	-19	-4	22	-4	-9	-1	0	2	-5
건설업	1	-17	9	-1	-24	7	-32	-4	33	0	1	0	2	1	-6
도소매	-25	9	-20	7	-22	2	-5	-10	10	-8	0	6	1	-4	-5
운수창고	12	-5	9	5	2	9	1	2	-7	2	2	-1	0	5	1
음식숙박	-23	-12	27	-25	-24	19	-48	-15	36	-15	-9	12	8	-6	6
정보통신	6	4	10	0	-2	1	-	-	-	0	1	1	3	-4	-1
금융보험	-1	18	-2	2	7	-3	-	-	-	0	4	-1	1	3	2
부동산	1	4	5	-2	7	2	0	0	1	0	-3	1	4	-5	-3
전문과학기술	5	-2	11	0	-9	-9	0	-3	-1	2	1	-2	3	-2	7
사업관리지원	-4	16	-21	4	-16	1	-17	0	7	1	0	-4	-1	2	-5
공공행정	9	25	-8	-52	-58	81	6	-8	1	-	-	-	-	-	-
교육서비스	14	2	-9	-9	15	-3	2	0	0	0	3	2	0	0	-2
보건복지	22	6	17	-42	-85	198	-2	2	0	-3	3	2	0	-2	1
예술스포츠	5	-3	0	-8	-5	16	-6	-1	-1	0	-3	-1	-9	-4	3
협회단체	-5	-8	14	-13	-13	16	-14	-2	7	1	-2	1	1	-6	-15
가구 내 고용	-	-	-	5	-3	1	-1	-1	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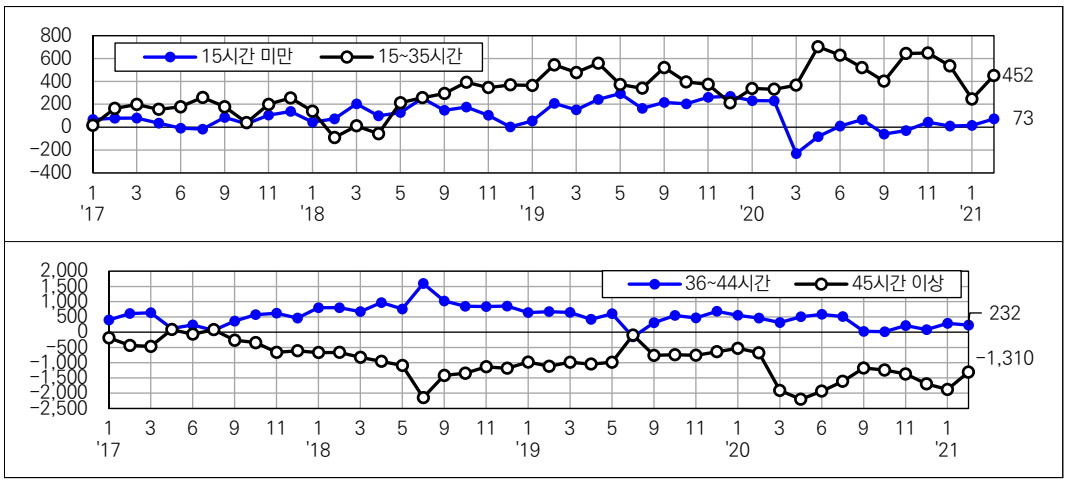
주 :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년동월대비) 2021년 2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1.2시간 감소하여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45시간 이상 취업자 비중이 4.3%포인트 감소함. 15~35시간(2.0%포인트)과 36~44시간(1.6%포인트) 취업자 비중은 증가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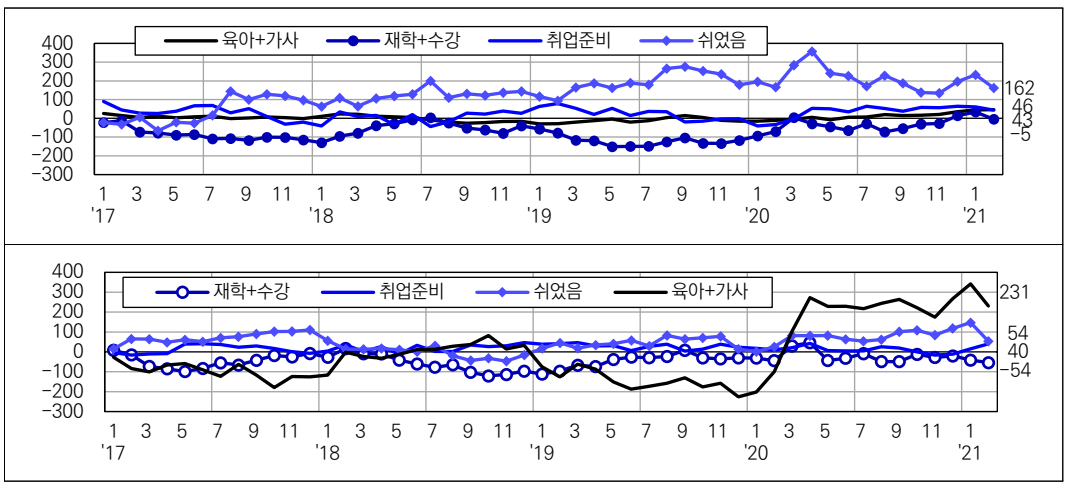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월대비로 육아·가사(여성) 및 쉬었음에서 감소함.

[그림 6] 성별(남자 : 위, 여자 : 아래)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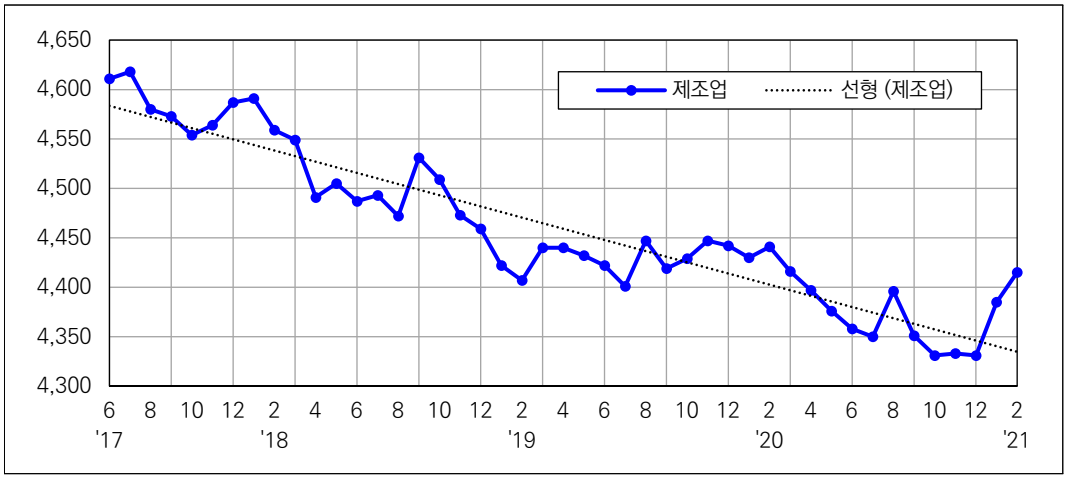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추세 이상 증가,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및 음식숙박에서 취업자 증가

○ 2021년 2월 제조업 고용은 추세보다 증가함.

- 경활, 고용보험 피보험자, 경기지수 모두 개선세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을 보면, 제조업 중 전자통신, 식료품 등에서 고용이 증가함.

[그림 7]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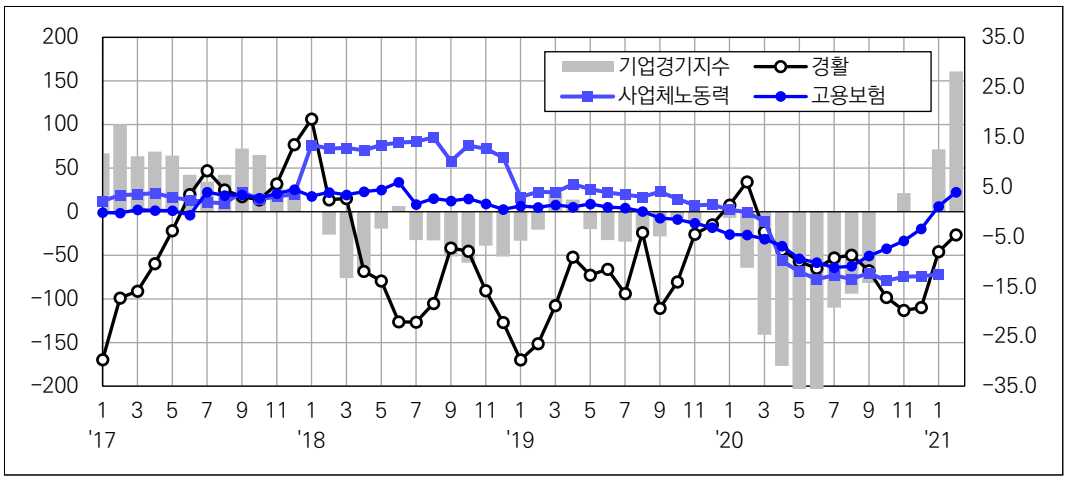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8]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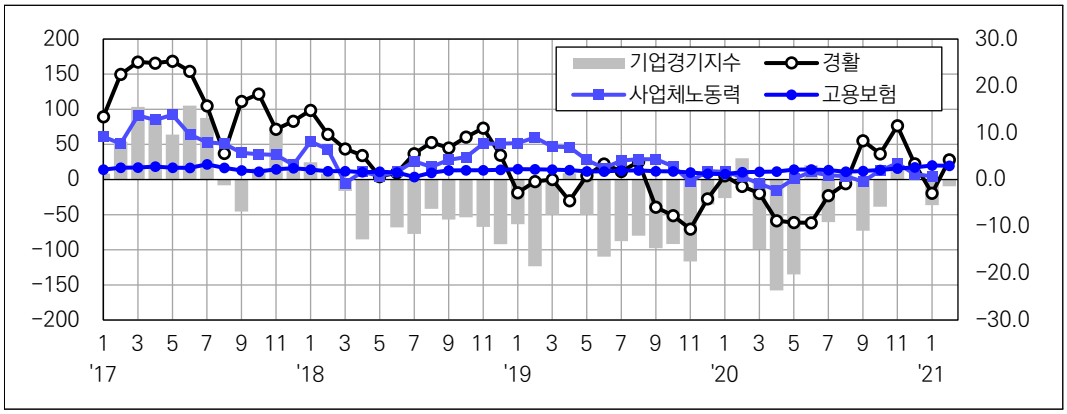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2월 건설업 고용은 취업자와 피보험자 모두 증가함.

–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는 전월에 이어 크게 증가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2월은 공공서비스업과 숙박음식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함.

– (도·소매업) 임시직 및 20대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2만 4천 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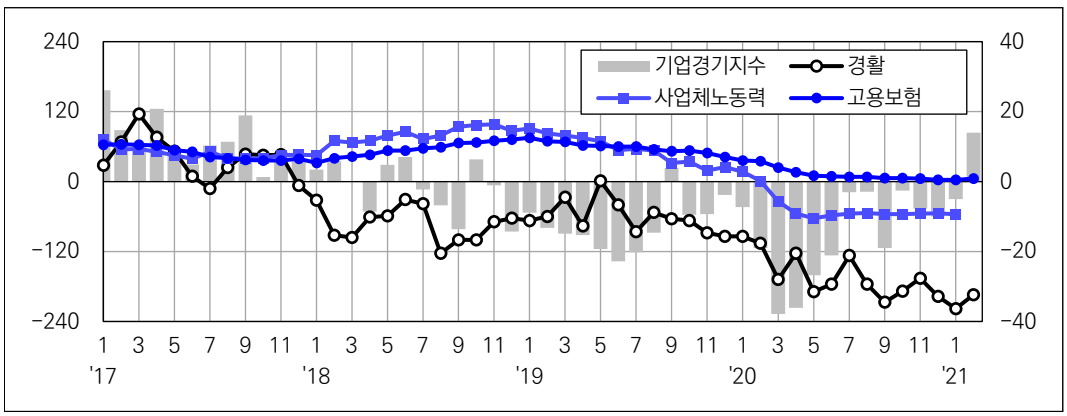
– (숙박음식점업)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13만 5천 명 증가함.

– (예술스포츠)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2만 8천 명 증가함.

– (보건사회복지) 임시직과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취업자가 16만 4천 명 증가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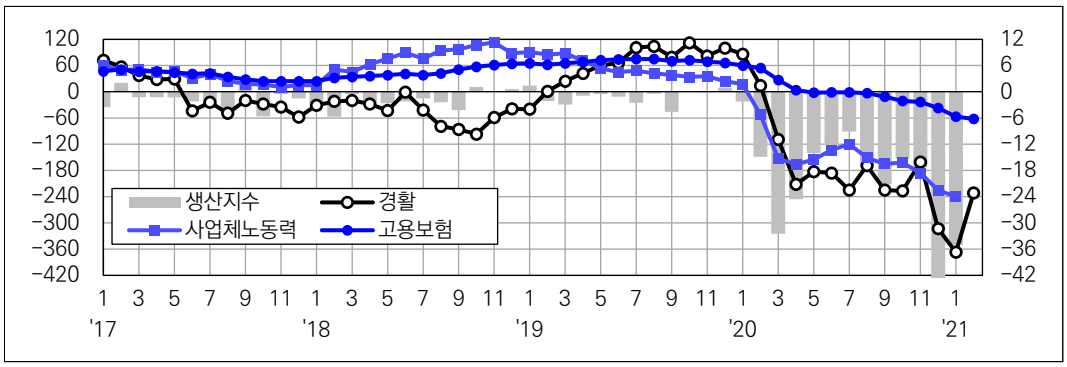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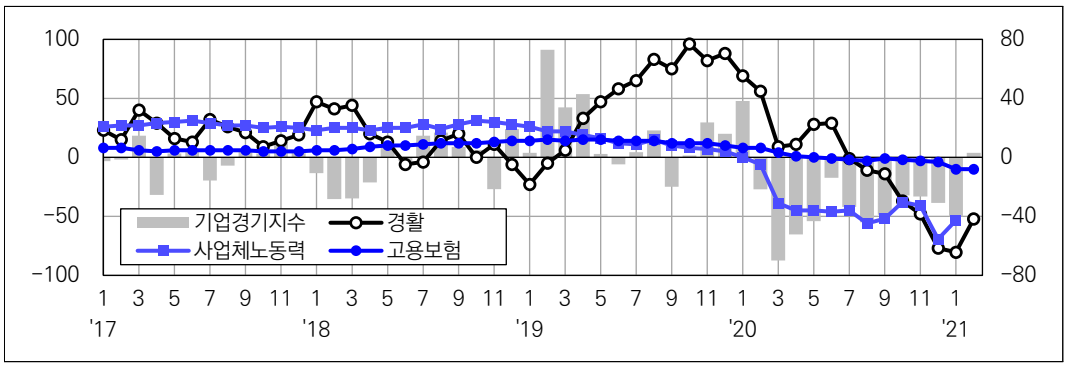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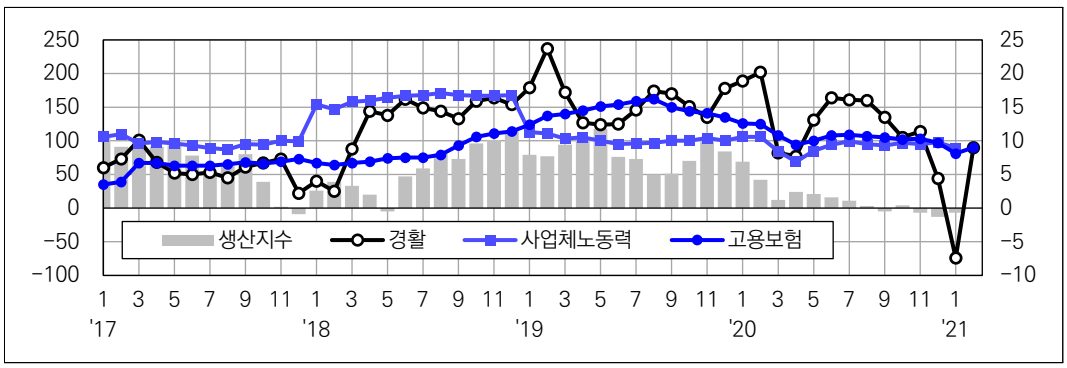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사회복지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가율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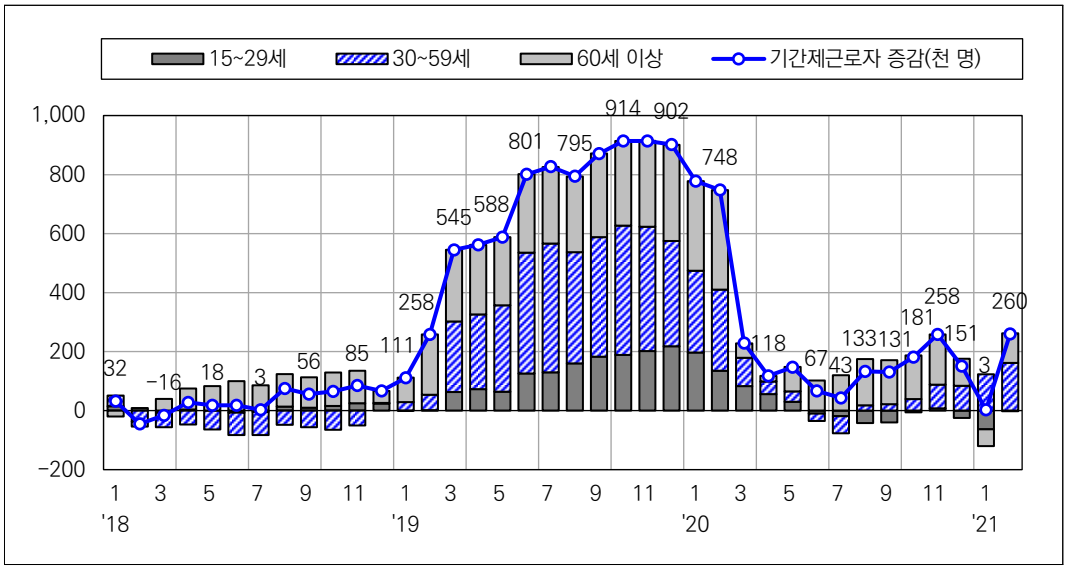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2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6만 명 증가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0년 12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2020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00만 4천 원(3.0%↑)임.

- 2020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24만 6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0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2%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 확대는 코로나19 및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특별급여의 증가(전년동월 특별급여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와 금년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의 특별급여 증가)에 기인함.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비상용근로자 수 감소 등으로 임금총액이 증가(8.2%)함.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0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함.

◈ 2020년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대비 1.1%로 상승폭 둔화(실질임금상승률은 0.5%)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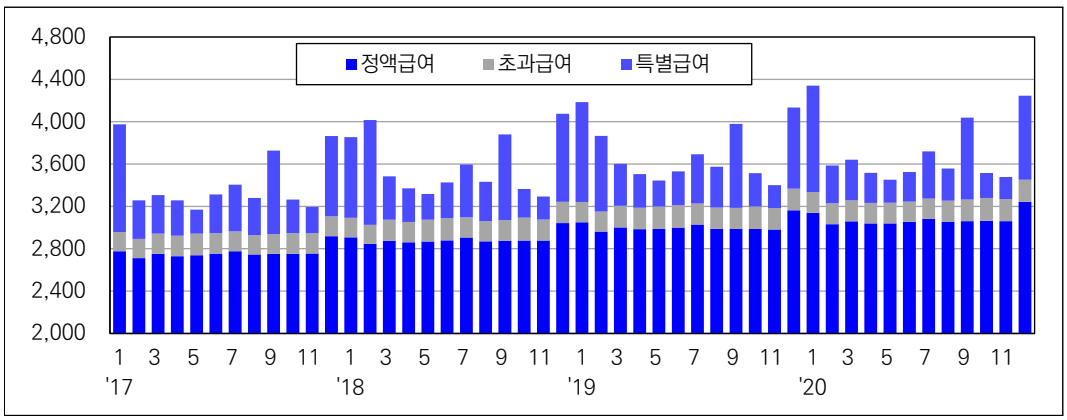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19 12월	2020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886 (2.0)	4,004 (3.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4,134 (1.5)	4,246 (2.7)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163 (3.9)	3,243 (2.5)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204 (1.4)	209 (2.5)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767 (-7.6)	794 (3.5)
임시 · 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576 (6.3)	1,705 (8.2)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5.1 (0.7)	105.7 (0.5)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1.3	2.5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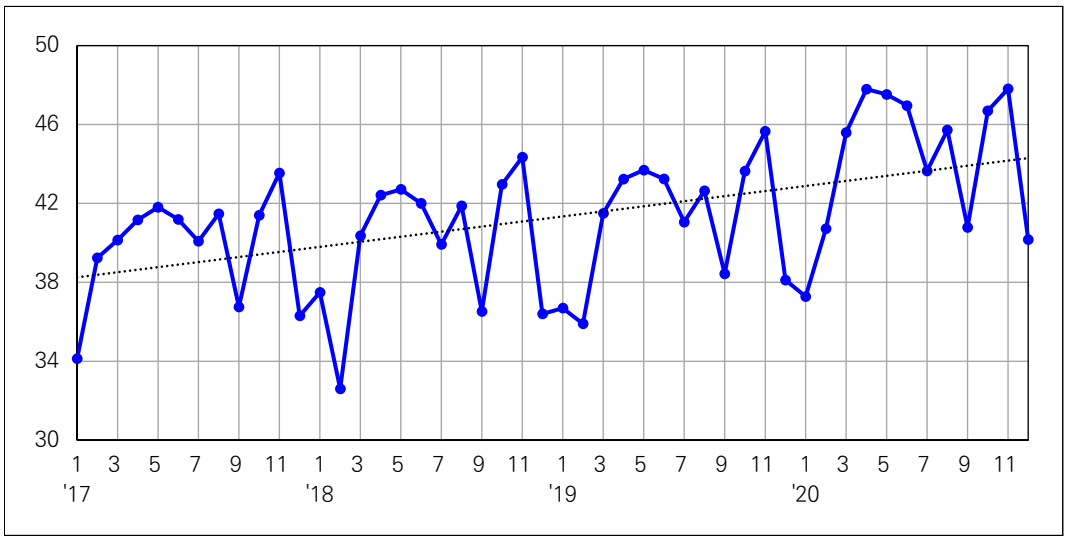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 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2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2.5%, 3.0% 상승

○ 2020년 12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각각 355만 5천 원, 628만 원임.

- 중소규모(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3.0% 상승함.
- 중소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7.8%,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14.9% 상승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확대는 전년동월 특별급여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와 제조업 등에서의 특별급여 증가 영향임.

◈ 2020년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1.7%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2.1% 하락

○ 코로나19의 영향이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줌.

- 특히 대규모 사업체의 마이너스 임금상승률은 반도체, 화학제품제조, 항공운송, 교육서비스업 등의 산업에서 특별급여 축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전년에 지급된 임금협상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소급분 등이 기저로 작용한 데 기인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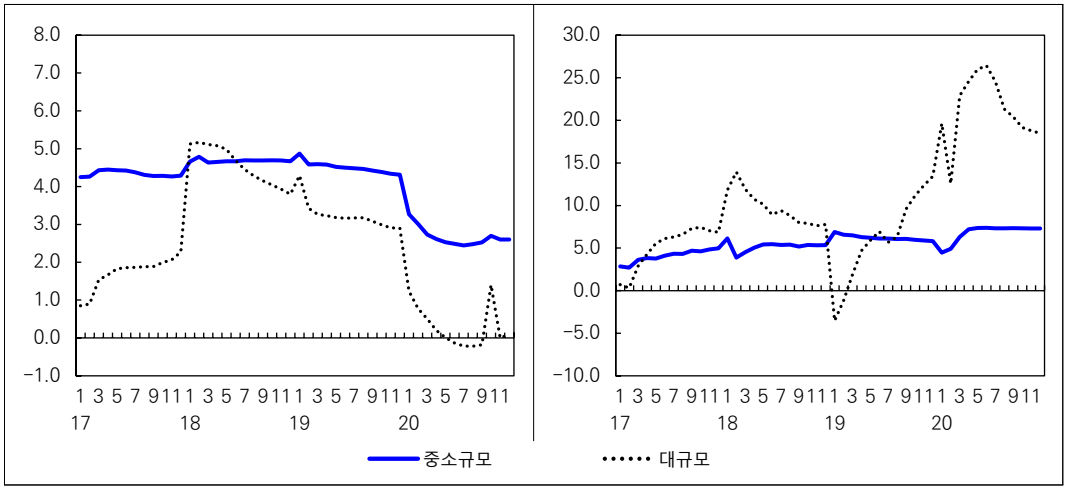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20	2019 12월	2020 12월
중소규모	소 계	3,019 (4.6)	3,139 (4.0)	3,193 (1.7)	3,467 (3.7)	3,555 (2.5)
	상용임금총액	3,217 (11.5)	3,338 (3.7)	3,377 (1.2)	3,701 (3.3)	3,782 (2.2)
	정액급여	2,723 (4.7)	2,841 (4.3)	2,915 (2.6)	2,961 (4.1)	3,037 (2.6)
	초과급여	172 (4.8)	175 (2.0)	171 (-2.4)	178 (1.0)	181 (1.4)
	특별급여	322 (1.9)	322 (-0.2)	292 (-9.4)	561 (0.3)	564 (0.5)
	비상용임금총액	1,422 (5.3)	1,505 (5.8)	1,615 (7.3)	1,558 (5.2)	1,680 (7.8)
대규모	소 계	5,305 (6.5)	5,356 (1.0)	5,242 (-2.1)	6,095 (-3.0)	6,280 (3.0)
	상용임금총액	5,474 (6.4)	5,492 (0.3)	5,335 (-2.8)	6,235 (-4.5)	6,405 (2.7)
	정액급여	3,735 (3.8)	3,843 (2.9)	3,847 (0.1)	4,143 (2.8)	4,202 (1.4)
	초과급여	324 (0.0)	335 (3.5)	340 (1.4)	328 (1.5)	341 (3.8)
	특별급여	1,415 (15.7)	1,313 (-7.2)	1,149 (-12.5)	1,764 (-18.9)	1,863 (5.6)
	비상용임금총액	1,509 (7.8)	1,712 (13.4)	2,029 (18.5)	1,891 (26.2)	2,172 (14.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2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가장 적음

○ 2020년 12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31만 4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818만 4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7만 3천 원)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12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만 원)이며,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60만 8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75만 6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20	2019 12월	2020 12월
전 산 업	3,376 (5.3)	3,490 (3.4)	3,527	3,886 (2.0)	4,004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056 (4.1)	4,517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4,524 (-3.1)	4,71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9,243 (-4.1)	9,31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4,149 (3.5)	4,865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129 (4.8)	3,165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880 (7.3)	3,900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985 (4.5)	4,112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48 (3.7)	1,860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786 (6.9)	4,948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7,283 (3.2)	8,184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942 (5.1)	3,10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5,979 (4.3)	5,97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477 (6.2)	2,608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443 (3.0)	3,3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3,104 (5.1)	3,059
여가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3,321 (4.1)	3,31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766 (1.7)	2,75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1시간 증가(월력근로일수는 21일로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

○ 근로시간 증감은 월력상 근로일수에 영향을 받는 편으로 2020년 12월 근로시간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1일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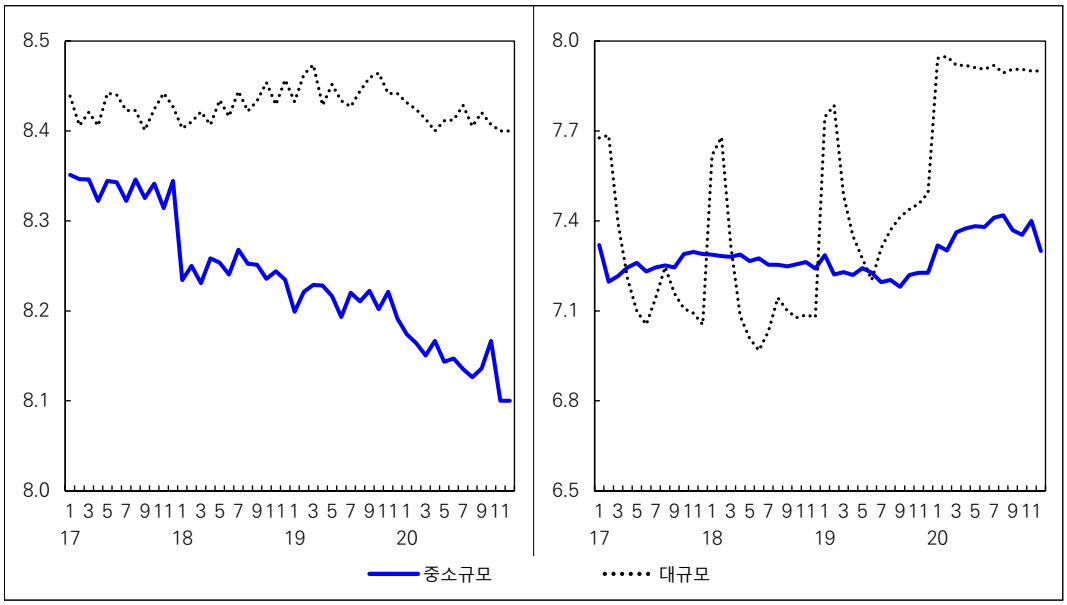
○ 2020년 12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함.

◈ 2020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0.6시간(2.5시간 감소)

○ 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대비 2일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이 2.5시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8	2019	2020	2019 12월	2020 12월
중소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 (-1.5)	163.0 (-0.7)	160.1 (-1.8)	164.8 (2.2)	166.6 (1.1)
	상용 총근로시간	172.1 (-1.3)	171.2 (-0.5)	167.6 (-2.1)	173.3 (2.2)	174.7 (0.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 (-1.0)	162.6 (-0.2)	159.8 (-1.7)	164.8 (2.8)	166.7 (1.2)
	상용 초과근로시간	9.1 (-6.2)	8.6 (-5.5)	7.8 (-9.3)	8.5 (-7.6)	8.1 (-4.7)
	비상용근로시간	99.2 (-6.1)	95.4 (-3.8)	96.1 (0.7)	95.6 (-1.2)	99.5 (4.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 (-0.7)	164.1 (0.5)	162.8 (-0.8)	164.5 (3.3)	168.0 (2.1)
	상용 총근로시간	166.6 (-0.7)	166.3 (-0.2)	163.9 (-1.4)	166.3 (1.9)	169.2 (1.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 (-0.3)	154.9 (0.0)	153.0 (-1.2)	155.5 (2.4)	158.3 (1.8)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 (-4.9)	11.4 (-2.6)	10.9 (-4.4)	10.7 (-6.1)	10.9 (1.9)
	비상용근로시간	89.2 (-1.2)	104.9 (17.6)	125.2 (19.4)	112.0 (36.9)	127.7 (14.0)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94.6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40.6시간)임

○ 2020년 1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이었으며, 다음으로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183.9시간), 제조업(181.8시간) 순으로 나타남.

– 12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이었으며, 다음으로 건설업(140.8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47.8시간),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48.0시간) 등으로 전산업 평균 근로시간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광업(181.2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36.6시간)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8	2019	2020	2019	2020
				12월	12월
전 산 업	163.9 (-1.4)	163.1 (-0.5)	160.6	164.7 (2.3)	166.8
광업	176.6 (0.5)	175.7 (-0.5)	181.2	180.1 (2.1)	194.6
제조업	177.1 (-1.5)	175.9 (-0.7)	172.7	178.2 (2.5)	181.8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 (-1.7)	160.4 (-1.0)	163.7	157.6 (-2.6)	170.9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 (0.4)	178.6 (0.4)	176.5	181.3 (2.5)	183.9
건설업	138.5 (-2.4)	136.3 (-1.6)	136.9	137.5 (1.2)	140.8
도매 및 소매업	165.2 (-1.4)	165.5 (0.2)	163.8	168.1 (3.1)	170.5
운수 및 창고업	166.5 (-1.6)	164.3 (-1.3)	159.0	166.4 (1.6)	164.1
숙박 및 음식점업	159.7 (-0.4)	158.6 (-0.7)	149.7	156.5 (-1.5)	147.8
정보통신업	161.6 (0.4)	163.9 (1.4)	163.8	164.9 (4.4)	169.1
금융 및 보험업	160.9 (0.2)	161.5 (0.4)	162.1	162.4 (3.4)	168.7
부동산업	178.9 (-3.2)	176.4 (-1.4)	173.2	179.1 (1.2)	179.6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 (0.2)	161.4 (0.6)	161.7	162.7 (4.6)	166.2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 (-1.2)	162.7 (-0.3)	161.7	165.4 (2.9)	168.9
교육서비스업	142.3 (-1.5)	142.1 (-0.1)	136.6	140.9 (2.8)	14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 (-1.2)	162.2 (-0.2)	158.6	164.7 (2.9)	166.2
여가관련 서비스업	157.7 (-1.1)	156.1 (-1.0)	149.7	156.7 (0.6)	148.0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0 (-1.3)	159.9 (-1.3)	160.3	161.5 (0.5)	168.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7~20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0건
  –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4건)보다 4건 적은 수치임.

○ 2021년 2월 조정성립률 50.0%
  – 2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0%에 비해 50.0%포인트 높아진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2.	0	4	2	1	1	2	0	2	0	0	0	50.0
2020. 2.	4	6	0	0	0	4	0	4	0	2	1	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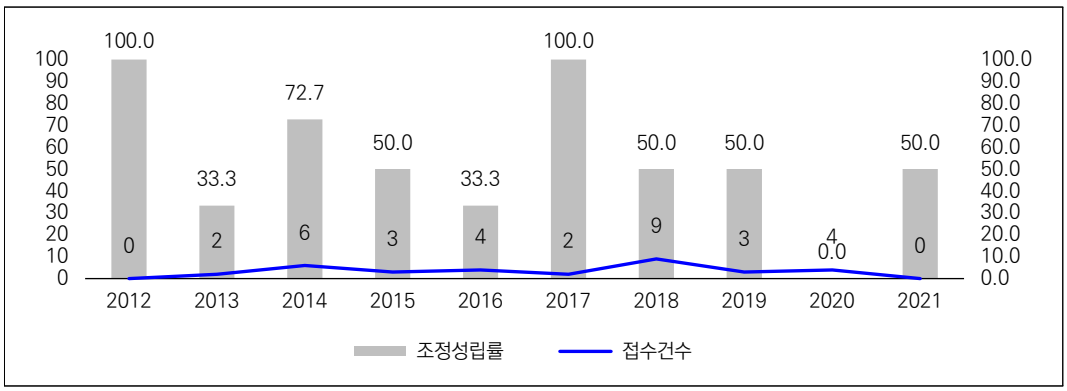
〈표 2〉 2012~21년 2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2.	2013. 2.	2014. 2.	2015. 2.	2016. 2.	2017. 2.	2018. 2.	2019. 2.	2020. 2.	2021. 2.
접수 건수	0	2	6	3	4	2	9	3	4	0
조정성립률	100.0	33.3	72.7	50.0	33.3	100.0	50.0	50.0	0.0	50.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2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37건

- 2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42건)보다 5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3.4%(40건),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비율이 76.6%(131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2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2.	137	171	32	8	70	11	32	18	556
2020. 2.	142	179	37	4	69	17	37	15	43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2건

- 2월 복수노조사건[1]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26건)보다 24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7.1%(4건),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비율이 42.9%(3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0. 2.	2	7	4	0	2	0	1	0	4
2019. 2.	26	16	8	0	8	0	0	0	1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경사노위, 공공기관 직무급제 · 노동이사제 추진 최종 합의

○ 2월 19일 본회의 열어 관련 안건 의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월 19일 서면 방식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안건을 의결했음.

1) 복수노조 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직무급제 · 노동이사제 도입은 2020년 11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임.
- 당시 공공기관위원회는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 ·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 ·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함.
-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 내용도 본위원회를 통과함. 합의 내용에는 △민주적 선출 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방법 등 제시 △근로자대표 임기 3년(노사 합의 시 3년 한도에서 자율적 결정) 명시 △근로자대표의 지위와 활동 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담겼음.
- 임금 직무급제는 직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것으로, 근속연수에 기반해 임금이 올라가는 기존 호봉제와 차이가 있음.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로 임명하는 것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10년 만에 대법 "어용노조 설립 무효"

○ 노조로서의 주체성이 없어 설립 자체가 무효

- 2월 25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금속노조가 기업 노조인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음.
-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해 해당 노조가 노조법상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설립 신고가 수립됐다고 해도 노동3권을 지닌 주체로서 노조의 지위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함.
- 유성기업 노사는 2011년 교대제 근무 도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음. 회사는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2011년 7월 복수노조법 시행에 맞춰 새 노조인 유성기업 노조를 만들었음. 이후 사측이 직원들에게 새 노조 가입을 종용한 결과 유성기업 노조가 과반수 조합원이 가입한 다수 노조가 됐음.
- 앞서 1심과 2심도 모두 “새 노조에서 노조의 자주성 및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유성기업 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단했음.

◈ 쿠팡 지난해 인정된 산재만 758건

-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6~20년 5개 택배물류업체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쿠팡에서 산재 승인 건수가 2016년 223건에서 2020년 758건으로 3.3배 증가했음.
- 운송 · 물류창고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는 산재 신청 건수가 2017

년 50건에서 2020년 239건으로 4.8배, 승인 건수는 같은 기간 48건에서 224건으로 4.7배 늘어났음.

- 2020년 쿠팡에서 사고 754건(96.4%), 질병 28건(3.6%)의 산재가 신청됐음. 질병 종류는 근골격계질환 26건, 뇌심질환 1건, 암 1건이었음. 이 중 승인된 것은 사고 743건(98.5%), 질병 15건(53.6)임. 질병은 모두 근골격계질환만 인정됨.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는 2020년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239건이며, 이 중 사고 204건(85.4%), 질병 20건(10.5%)이 승인됐음. 승인된 질병 20건 중 7건은 근골격계질환, 13건은 기타로 분류됐음. 뇌심질환(2건)과 정신질환(1건)은 산재로 승인받지 못했음.
- 쿠팡 이외 4개 택배물류업체의 산재 발생 역시 산재 신청이 2016년 7건에서 2020년 34건으로 4.9배 증가했고 산재승인은 같은 기간 7건에서 31건으로 4.4배 증가했음.
- 2020년 CJ대한통운에서 26건이 신청돼 24건이 승인됐음. 롯데택배는 4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고, 로젠택배는 4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음.

〈표 5〉 2016~20년 택태물류업 업체별 산재 현황

(단위 : 건)

	2016		2017		2018		2019		2020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신청	승인
CJ대한통운	6	6	3	2	10	8	9	7	26	24
롯데택배							1	1	4	4
한진택배	1	1	1	1	2	2	2	2		
로젠택배					2	1	5	5	4	3
쿠팡(주)	255	223	159	141	201	193	345	334	782	758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50	48	150	148	191	181	239	224

주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는 2016년 12월 1일 산재보험 가입.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재 60%가 6개월 미만 근무 노동자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927명(77.5%)

-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발생한 국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486명으로 집계되었음.
- 그중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927명(77.5%)으로 절반이 넘었고 5~49인 사업장 노동자는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854명(34.3%)이었음.
- 기업 규모별 산재 사망 노동자는 50~299인 사업장 416명(16.7%), 300~999인 사업장 98명

(4%), 1,000인 이상 사업장 45명(1.8%)이었음.

- 같은 기간 기업 규모별 산재 사고 사망자는 6개월 미만 노동자가 1547명(62.2%)으로 가장 많았고, 6개월 이상 1년 미만 노동자는 244명, 1년 이상 2년 미만 노동자는 206명이었음.
- 업종별로는 건설업(1,262명)이 절반을 웃돌았고, 제조업(567명)이 뒤를 이었음.

◈ 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10명 중 6명 비정규직

-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0대 건설사 안전보건관리자 4,272명 중 정규직은 1,629명(38.1%)이었음. 그중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는 2,643명(61.9%)이었음.
- 30대 건설사 중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호였음. 전체 70명 중 10명(14.3%)만이 정규직이었음. HDC현대산업개발은 175명 중 37명(21.1%), 신세계건설은 56명 중 12명(21.4%), 한양은 49명 중 11명(22.4%)이었음.
- 같은 당 장철민 의원이 청문회에 출석한 3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비정규직 평균 경력은 현대건설이 1.6년(정규직 11.1년)으로 가장 짧았음. 비정규직 평균 경력은 GS건설이 9.4년(정규직 12.4년), 포스코건설이 11.4년(정규직 10.3년)이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연봉 비율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57.9%로 가장 낮았음. 현대건설 58.9%, GS건설 68.4%였음.

〈표 6〉 2018~2020년 30대 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단위 : 명, %)

	2018			2019			2020		
	전체	정규직	비율	전체	정규직	비율	전체	정규직	비율
현대건설(주)	390	91	22.3	442	119	26.9	400	128	32.0
지에스건설(주)	338	100	29.6	386	125	32.4	329	121	36.8
(주)포스코건설	286	45	15.7	309	85	27.5	326	127	39.0
전 체	4,180	1,284	30.7	4,355	1,569	36.0	4,272	1,629	38.1

주 : 30대 건설사 중 3곳만 추림.
자료 : 고용노동부.

◈ 산재사망자 23%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 2월 22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체 산재 사망자 9,467명 중 2,176명(23.0%)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음. 2016년 412명(23.2%), 2017년 416명(21.3%), 2018년 479명(22.4%), 2019년 494명(24.5%)으로 늘었음. 2020년 9월 기준 375명(23.9%)임.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50명 미만 사업장 산재 사망자 비중은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를 기록했음.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전체 8,603건 중 2,337건(27.2%)이었음. 중대재해 역시 5명 미만에서는 2016년 451건(27.1%), 2017년 446건(25.4%), 2018년 510건(26.5%), 2019년 530건(28.5%), 2020년 9월 400건(28.6%)으로 매년 증가했음.

〈표 7〉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2016	2017	2018	2019	2020. 9.
계	1,662	1,757	1,927	1,857	1,400
5인 미만	451	446	510	530	400
5~9인	214	237	241	231	158
10~29인	339	328	418	398	303
30~49인	148	148	166	150	121
50~99인	171	169	168	177	128
100~299인	188	209	245	221	170
300~499인	57	70	68	59	36
500~999인	47	47	49	49	45
1,000인 이상	47	49	62	42	39

자료 : 고용노동부.

◈ '끼임' 산재 사망, 4년간 272건의 절반은 수리 · 청소 등 비일상적 업무 중 발생

○ 상당수 방호설비 미설치 사고

- 3월 9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16~2019년 제조업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된 '중대재해조사보고서' 272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음.

- 사망 사고 중 절반이 넘는 146건(54%)이 수리 · 정비 ·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중 발생했음.
- 구체적인 작업 상황별로 보면 '가동 중 수리 점검 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업 유도자 배치 및 신호체계 미흡으로 인한 사고'(30건), '보수 시 안전조치 불량'(27건) 순이었음.
-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 · 일요일에 발생한 산재 사망 건수가 45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금요일 39건, 화요일 36건 순이었음. 재해의 원인이 된 시설물은 벨트컨베이어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장 크레인, 지게차가 각각 17건이었음. 고용 형태는 정규직 181건, 비정규직 25건이었음.
- 산재 사망 사고 상당수는 방호설비 미설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음. 조사 대상 중 방호설비를 갖춰야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132건이었는데, 설비 미설치로 인한 사망 건수가 115건, 오설치로 인한 사망 건수가 13건이었음. 방호설비를 설치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4건이었음.

◈ 12개 업종 특고노동자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 퀵서비스 · 대리운전기사는 내년부터

- 2월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에서 특고 고용보험 세부 적용 방안을 의결했음.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 대출모집인, 학습지 ·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기사, 방과후 강사는 7월 특고 고용보험 시행과 함께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 퀵서비스 ·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보험료 원천공제 · 납무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됨. 가사노동자, 전세 · 셔틀버스기사 등은 올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음.
-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금노동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음. 이를 노사가 절반(0.7%)씩 분담함. 실업급여 월 하한액은 기준보수(133만 원)의 60%인 79만 8,000원이며,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하루 6만 6,000원임.

◈ 정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 발표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등 근무 환경 개선책 마련

- 2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감시 · 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함.
- 현행법상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면제받아 왔음. 하지만 승인

제도에 유예기간이 없어 승인 후 근무조건을 변경하거나, 승인 취소된 후에도 즉시 재신청이 가능한 점 등 운영상 미비한 점이 있었음.

- 개선 방안에는 ▲사업 승인 유효기간 설정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감시업무 외 겸직 판단 기준 마련 ▲장시간 근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음.
- 사업 승인 유효기간 설정 :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사업 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유효기간 종료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근로자 휴식권 보장 강화 : 사업주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휴게시설은 근무지와 장소를 분리해야 하며 적정 실내 온도 유지와 소음 차단 등의 조치가 시행돼야 함.
- 감시업무 외 겸직 판단 기준 마련 : 2021년 10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 외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 가능해짐에 따라 겸직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임. 고용부는 현행 규정상 외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근로시간 제한 면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
- 장시간 근로 개선 : 일반적으로 아파트경비원 등은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무하게 됨. 이에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 및 관리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임.

◈ 여성 노동자 70%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직장 내 불이익 우려"

- 3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휴가 등을 내고 돌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여성(40.7%)과 남성(40.2%)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직장 내에서 불이익당할 것을 우려하는 비율은 여성이 70%에 달해 남성(53.8%)에 비해 16.2%포인트 높았음.
- 또한 이번 조사에선 남녀 간 고용 차별 정도도 집계됐음.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직급으로 진급하는 소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1.3년(16개월) 느린 것으로 나타났음. 대리급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1년 느린 반면 ▷과장급(1.1년) ▷차장급(1.6년) ▷부장급(1.5년)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진급 소요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항공노련, 의료노련 소속 남녀 조합원 6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음.

〈표 8〉 성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과 불이익 경험

(단위 : %, 명)

	기존의 업무/부서 변경	기존의 업무/부서 변경 경고	낮은 고과평가/진급 누락	낮은 고과평가/진급 누락 경고	가족돌봄이 지속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됨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받을 가능성도 없음	전 체
전 체	2.9	0.6	4.7	1.8	62.4	27.7	100.0
	5	1	8	3	106	47	170
남 성	3.8	1.3	5.0	1.3	53.8	35.0	100.0
	3	1	4	1	43	28	80
여 성	2.2	0.0	4.4	2.2	70.0	21.1	100.0
	2	0	4	2	63	19	90

자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여성 노동자들 갈증 참는다

○ 10명 중 4명 “근무 중 수분 섭취 제한”

- 3월 4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여성 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 토론회’를 열고 2020년 여성 노동자 889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함.
- 업무 수행 장소에서 1~2분 거리 내에 화장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11명 중 93명(13.08%)이 ‘없다’고 답했음.
- 화장실에 도착해도 1~2분 이내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718명 중 96명(13.37%)이 ‘가능하지 않다’고 했음.
-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003년부터 생산라인에 여자는 혼자였다. 현장 배치되면 화장실이 없거나 있어도 멀어 가기 어려웠다”고 했음. 복합쇼핑몰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화장실은 보통 한 층에 세 칸, 네 칸인데 직원은 수백 명이다. (화장실 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음. 열차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기관차에는 화장실이 없고 객차에는 손님용뿐”이라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기차가 정차한 1~4분 사이에 왕복 최대 140m를 전력질주해야 한다”고 했음. 건설 현장에는 여성용 화장실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음.
- 또한 근무 중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 제한을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64명 중 317명(36.68%)이 ‘있다’고 답했음. 일부 응답자는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불안감 및 자존감 저하’를 느낀다고 했음.
- 최근 1년간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증상(복수 응답)을 묻는 질문에 입마름을 호소한

이들이 4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잔뇨감 395명, 어지러움 및 현기증 382명, 근육경련 및 근육저하 329명, 배뇨통 313명이었음.

◈ 코로나에 여성 노동자 5명 중 1명 퇴직 경험

○ 퇴직한 20대 여성 중 21.9%는 숙박음식점업, 38.3%는 서비스·판매직에 근무한 것으로 집계

- 3월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코로나19 1년 여성 노동자 일자리 변동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응답자 중 20.9%(629명)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퇴직한 경험이 있었음. 퇴직을 경험한 여성 중 절반가량인 48.6%는 임시직·일용직 노동자였음.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비중은 45.8%였음.
- 같은 기간 20대 여성의 퇴직률은 29.3%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음. 20대 여성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시기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음. 20대 중에서도 고졸 이하 여성의 퇴직률은 44.8%였음. 퇴직한 20대 여성 중 21.9%는 숙박음식점업, 38.3%는 서비스·판매직에 근무한 것으로 집계됐음.
- 숙박음식점업 종사 여성 노동자 중 휴업·휴직을 겪은 경우는 76.6%였음. 소득 감소를 겪은 사례는 43.6%였고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례는 각각 6.1%, 9.7%였음.
- 조사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노동 경험이 있는 20~50대 여성 3,007명을 대상으로 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